

식품수출정보

業務部

美설탕 輸入쿼터制 不適法인정

— GATT, 濠洲 提訴따라 —

濠洲무역교섭무(Ministry of Trade Negotiation)의 Duffy 장관은 GATT패널에서濠洲정부가美國을 상대로 제소한 설탕 수입쿼터제의 부적법성을 심사한 결과, 美國측의 부적법성이 인정되었다고 지난 5月 23日 발표했다.

美國은 현재 原糖 및 제당업자 보호를 위해 輸入쿼터制度 시행과 더불어 파운드당 0.22弗의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다.

최근의 국제원당 가격은 파운드 당 0.12~0.13弗인데 반해 濠洲內 생산단가는 0.08~0.09弗 수준으로, 濠洲업계는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濠洲의 對美 원당 수출은 81 / 82년도 54만9천 t에서 美國의 輸入쿼터제 실시로 87 / 88년도 6만7,500 t으로 급감하는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濠洲정부는 美國의 설탕 輸入쿼터제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74년간 지속해온 설탕수입금지법(Sugar Import Embargo Act)을 국내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89년 7월 1일부터 관세부과(89 / 90년도 원당 35%, 정제당 25%) 방식으로 변경, 지난 4월 18일 발표하

는 등 GATT패널 판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 왔다.

이로써 濠洲는 日本과 우리 나라의 쇠고기 수입규제 및 美國의 설탕수입쿼터규제에 따른 GATT 제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금번 자국내 설탕수입금지법안 폐지로 國際原糖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시 자칫하면 자국시장 상실 위험도 악화 되었다.

濠洲產 輸入 쇠고기 規制 검토

— 대만, 쿼터제 도입으로 —

臺灣정부는 자국내 畜産業者 보호를 이유로 외국산 輸入쇠고기규제를 검토중이라고 5월 25일 濠洲 Meat & Livestock Corp.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濠洲정부는 제4위의 주요 쇠고기 수출시장인 臺灣의 수입쇠고기 규제전을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긴급 파견하는 한편 이같은 규제조치가 양모·알루미늄 및 石炭 등 여타 주요수출품목에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臺湾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국내 축산업자 보호가 아닌 臺湾측 對美 통상협상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쿼터制度가 日本이 종래 시행하던 방식과 유사하며, 美國이 주 수출품인 곡물사료로 사육된 고급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실상 濠洲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88년도중 濠洲는 臺湾의 약 2만9천 t(A\$1 억200만)의 쇠고기를 수출해 臺湾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 했다.

美國의 穀倉地帶 가뭄 위협

— 穀物과 肉類價格에 큰 영향 미칠듯 —

88년 美國농업을 뒤흔들었던 가뭄이 또다시

中西部 및 西部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캔자스·아이오와를 비롯한 中西部 주요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며 켈리포니아 등 西部지역 피해도 큰편이어서 미국 곡창지역의 약 40% 가량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작년 東部 펜실베이니아洲에서부터 西部의 몬타나洲에 이르기까지 곡창지역의 80%가 피해를 입었던 가뭄에 이어 2년연속 심한 가뭄이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氣象學者들은 예상하고 있고, 때맞춰 내린 비로 西部지역의 가뭄은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가뭄피해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최근 美농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의 밀 경작면적이 88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밀의 수확량은 최근 10년간 가장 저조했던 88년 수준에도 밀돌아(8% 감소) 先物市場에서의 거래가격 급등이 예견되고 있다.

현재 경작되고 있는 옥수수와 콩 등 주요곡물의 경우에도 가뭄피해가 어느정도일 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穀物成長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소인 土地의 수분함유량이 평균치를 훨씬 밀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對美 곡물수입국과 美國의 Major 곡물상·경제학자 등은 중·장기 기상예측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계속되는 가뭄으로 中西部지역의 축산업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캔자스洲와 아이오와洲 등의 경우에는 목초지

가 메말라 사료용 목초의 공급이 원활치 않자 목축업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가축을 처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뭄피해가 가장 심각한 캔자스洲의 경우 88년에 38억弗을 기록한 가축판매액 격감과 함께 밀 생산도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洲정부에서는 잔디에의 살수금지, 일일 급수량제한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가뭄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韓國 쇠고기 市場開放 강력 추진

— 헐즈 USTR代表 청문회에서 밝혀—

헐즈 USTR대표는 지난 6월 14일 美上院 재무위(위원장 Brntsen 의원)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재무위가 신통상법 이행 감독을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Baucus 상원 의원의 질문에 이와같이 답변한 헐즈대표는 또한 앞으로 USTR의 관심사는 한국·대만 등과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감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USTR은 지난 6월 8일의 하원 무역소위 청문회에서와 같이 슈퍼 301조로 인해 한국·대만·등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으며, 대만 중국, 콜롬비아 등과의 지적소유권 협상도 신통상법 특별 301조의 위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보고 했다.

노사화합 더욱 다져 두손 잡고 함께 번영